

맞벌이 주말부부와 홀벌이 주말부부의 자녀양육 연구

한 유 미* (호서대학교 아동학전공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주로 남편의 직업이나 자녀교육 문제로 인하여 남편만 떨어져 사는 전통적인 홀벌이 주말부부와 여성의 직업적 성취와 자아실현 욕구로 인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맞벌이 주말부부를 자녀양육의 측면에서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맞벌이 주말부부와 홀벌이 주말부부가 주말부부로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일반적인 방법과 보육실태를 비교하였다. 둘째, 두 집단의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양육죄책감을 질적인 방법을 통해 살펴보았다.셋째, 두 집단 어머니들이 남편으로부터 받는 양육협조와 시댁, 친정, 이웃/친구로부터 제공받는 양육지원과 이로 인한 갈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만 3~8세 자녀를 둔 주말부부 어머니 87명(홀벌이 주말부부 57명, 맞벌이 주말부부 30명)과 일반부부 어머니 87명 등 총 174명의 어머니들이다. 측정도구로는 주말부부의 일반적 특성, 시집, 친정, 이웃/친구의 양육지원 및 갈등, 남편의 양육협조에 관한 문항을 사용했고,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은 개방형 질문으로 조사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맞벌이 주말부부와 홀벌이 주말부부가 주말부부로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거의 유사했지만, 맞벌이 주말부부의 경우 자녀가 아버지와 동거하는 경우와 이동 주체가 어머니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둘째, 맞벌이 주말부부 어머니들은 주로 자신의 취업으로 인하여 양육죄책감을 느끼는 계기가 많았고, 홀벌이 주말부부 어머니는 아버지의 부재로 인하여 양육죄책감을 느끼는 상황이 많았다. 셋째, 맞벌이 주말부부와 홀벌이 주말부부가 사용하는 보육방법은 차이가 있었다. 홀벌이 주말부부 어머니에 비해 맞벌이 주말부부 어머니는 친정식구가 집으로 오거나 아이를 그 집에 보내서 아이를 돌보게 하거나 파출부 및 가정부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2가지 이상의 복수 보육방법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넷째, 시댁으로부터는 홀벌이 주말부부 어머니가 맞벌이 주말부부 어머니보다 더 많이 양육을 지원받고 있었으나 친정으로부터의 양육지원은 맞벌이 주말부부 어머니가 더 많이 받고 있었다. 이웃이나 친구로부터 제공받는 양육지원은 두 집단간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또한 주말부부 어머니들은 시댁으로부터 도구적 양육지원뿐 아니라 정보적 양육지원을 많이 받을 때에도 시댁과 갈등을 많이 경험하고 있었으나 친정에서 정보적 양육지원이나 도구적 양육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친정과 갈등을 많이 느끼는 것은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양육 협조는 주말부부와 일반부부 집단 간뿐 아니라 맞벌이 주말부부와 홀벌이 주말부부간에도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가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맞벌이 주말부부들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